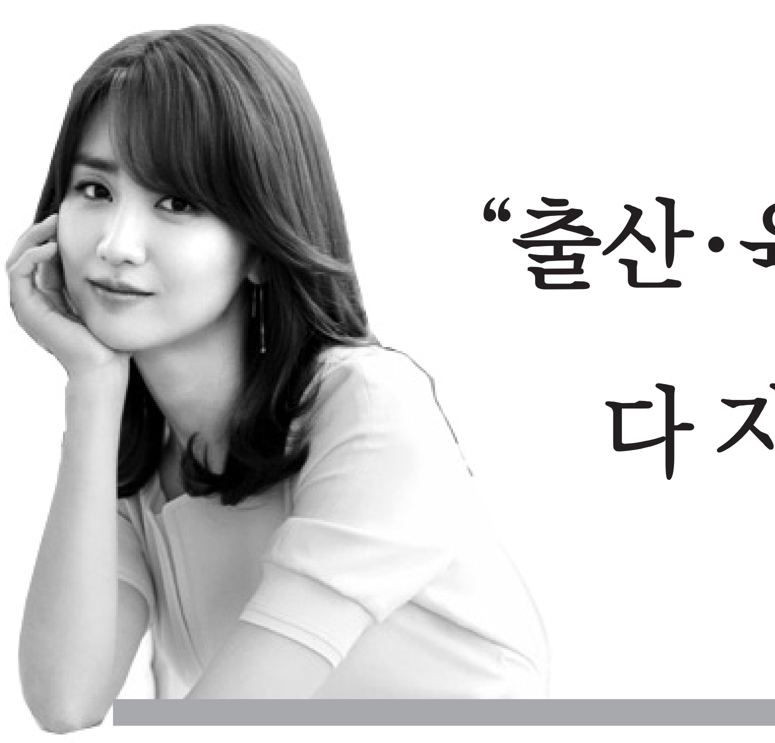

# "출산·육아로 쉰 3년 다 자산이 되던걸요"

박 하 선

## 채널 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오세연 역'으로 브라운관 컴백

## "갈등의 특효약은 따뜻한 말 한마디 결혼 후 노력이 더 필요하다 느껴"

## "나이 들어감에 따라 연기관 변해 뻔하지 않는 내 길 찾아갈 자신 생겨"

"집에서 쉬는 동안 메이크업도 잘 안 해요. 지은이가 머리 질끈 묶고 장 보러 다니는 게 본래 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재미있겠다 싶었어요."

최근 종영한 채널A 드라마 '평일 오후 세 시의 연인'을 통해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박하선(32)은 최근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열린 종영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박하선은 SBS TV '사랑은 기적이 필요해'로 데뷔해 MBC TV 드라마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으로 인지도를 높였다. 3년 전 tvN 드라마 '혼술남녀'가 그를 TV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었다.

박하선은 3년의 공백기가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털어놨다.

"쉬면서 쌓은 소중한 경험들이 자산이 됐어요. 화장실에서 많이 울어보기도 했는데 이번에 우는 장면을 하루 6번씩 찍어도 잘 울게 되더라고요. 이러려고 그렇게 아팠구나 싶었죠."

박하선은 불륜 소재를 다룬 작품을 하며 "즐겁지만은 않았다. 입맛이 없어져서 살까지 빠졌다"고 고백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걸 모를까 싶었어요. 남자분들도 보고 많이 반성하셨다 하더라고요. 결혼했다고, 이미 잡은 사람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서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는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이상엽에 대해 "남자 배우 중엔 대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연기에 대해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열려있는 배우"라며 치켜세웠다.

극 중 박하선은 독백체의 내레이션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그려냈다.

"'우리가 20대 때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무심히 서로를 스쳐 갔을 겁니다'라는 대사가 기억에 남아요. 현실적이라 공감이 많이 됐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박하선은 작품 결말에 대해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열린 결말"이라며 "작품 속 인물들은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온 상태고,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쉬는 동안 완전히 30대에 들어선 박하선은 나이를 먹으며 연기자로서 변화한 마음가짐에 대해 밝혔다.

"예전에는 대본에 써진 대로만 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뻔하지 않게 연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길을 찾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니 조금이라도 다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해보고 싶어요."

/연합뉴스

# '타인은 지옥이다' 첫 방부터 터졌다

## OCN 새 주말극 시청률 3.8%

## 웹툰 원작과 높은 싱크로율 호평

웹툰 속 배경인 고시원은 물론 캐릭터들도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원작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20분 방송한 OCN 새 주말극 '타인은 지옥이다' 첫 방송 시청률은 3.8%(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이 작품은 네이버 동명 웹툰(작가 김용키)를 원작으로 했으며, 영화 '사라진 밤'을 연출한 이창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1회에서는 갓 상경한 청년 윤종우(임시완 분)가 낡고 음침한 에덴고시원에 발을 들이며 '이상한 이웃'들과 하나둘씩 접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사전 포스터에서도 공개됐듯 종우부터 고시원 주인 엄복순(이정은), 310호 조폭 아저씨 안희중(현봉식), 기괴한 웃음소리의 말더듬이 306호 변득종(박종환), 이유 없이 불쾌한 시선을 보내는 홍남복(이중옥), 기묘한 302호 남자 유기혁(이현욱)까지 모든 캐릭터가 원작 모습 그대로 구현됐다.

지저분하고 작은 프라이버시조차 챙기기 어려운 고시원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고스란히 실사화됐다.

제대 후 복귀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임시완은 모나지 않았던 성격의 청년이 이상한 고시원에서 점점 예민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첫 회에서부터 섬세하게 그려냈다. 그와 호흡하는 이상한 입주자들도 원작의 톤을 살리면서 기괴하고 섬뜩한 연기를 보여줬다.

/연합뉴스

# 올레tv 한국영화 최고 매출은 '극한직업'

## 11년간 가장 많이 본 영화 100편 공개

## 최다 출연 배우는 조진웅

지난 11년간 올레tv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한국영화는 '극한직업', 가장 많이 출연한 배우는 조진웅 씨로 나타났다.

KT는 최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올레tv 고객 200명을 초청해 '한국영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로 100년을 맞은 한국영화의 탄생과 발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08년 올레tv 출시 이후 가장 많이 본 영화 100편이 공개됐다. 100편 가운데 한국영화가 70편을 차지했고, 70편의 누적 VOD 매출액은 약 1200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본 한국영화 100편도 집계됐다. 100편 가운데 최고 매출을 기록한 한국영화는 '극한직업'으로 구매 횟수 55만건, 누적 매출액 약 50억원을 기록했다. 다큐멘터리 장르로는 처음으로 '노무현입니다'가 상위 100편 내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작품에 출연한 배우는 조진웅으로 '완벽한 타인', '독전', '공작' 등 총 10편에 출연했다. 가장 많은 작품을 올린 감독은 윤종빈 감독으로 '공작', '군도', '범죄와의 전쟁' 3편이 순위권에 들었다.

또 올레tv에서 많이 본 한국영화 100편에는 극장 박스오피스 100위 안에 없는 영화 37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SBS |
|---|---|---|---|---|
| 6 | 00 KBS 뉴스 광장 |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재) | |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br>50 모두 다 쿵따리 | 35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30 닥터 365<br>35 수상한 장모 |
| 9 | 30 KBS 뉴스 | 00 여름아 부탁해(재)<br>40 무한리필 샐러드 | 30 930 MBC 뉴스<br>45 기분 좋은 날 | 10 좋은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지구촌 뉴스 | 45 웰컴2라이프(재) | 10 SBS 뉴스<br>20 KBC 생활뉴스<br>30 살맛 나는 오늘 |
| 11 | 00 다큐 공감(재)<br>50 UHD 한식의 마음 |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 | 00 꾸러기 탐구생활<br>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
| 12 | 00 KBS 뉴스 12 | | 00 12 MBC 뉴스<br>20 웰컴2라이프(재) | 00 SBS 12뉴스<br>25 민방 네트워크 뉴스<br>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br>55 정재영의 이슈in |
| 1 |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br>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br>50 2시 뉴스 외전 | 55 닥터 365 |
| 2 | 50 미니다Q(재) | 00 KBS 뉴스타임<br>10 생생정보 스페셜 | | 00 뉴스브리핑 |
| 3 | 10 전라도 매력청(재) |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br>30 TV 유치원 |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br>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 |
| 4 | 00 사사건건 |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 20 모두 다 쿵따리(재) | 00 월드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br>55 닥터 365 |
| 5 | 00 KBS 뉴스 5<br>30 전국을 달린다<br>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영화가 좋다(재) | 00 5 MBC 뉴스<br>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 00 SBS 오뉴스<br>45 KBC저녁 뉴스 |
| 6 | 00 6시 내고향 | 00 KBS 경제타임<br>30 2TV 생생정보 | 25 오매! 전라도 |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
| 7 | 00 KBS 뉴스 7<br>40 우리말 겨루기 | 50 태양의 계절 | 30 MBC 뉴스데스크 | 00 법률 365<br>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
| 8 | 30 여름아 부탁해 | 30 글로벌24<br>55 옥탑방의 문제아들 | 55 웰컴2라이프 | 00 SBS 8 뉴스<br>35 KBC 8 뉴스<br>55 생활의 달인 |
| 9 | 00 KBS 뉴스 9 | | | |
| 10 | 00 가요무대 |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 05 스트레이트 | 00 리틀 포레스트 |
| 11 | 00 오늘밤 김제동<br>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 10 안녕하세요 | 05 문화콘서트 난장 |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
| 12 | 35 KBS 뉴스<br>45 이웃집 찰스(재) | 35 비바 K리그 | 05 스포츠 다이어리<br>20 스포츠특선 | 40 나이트 라인 |

##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로보카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띠띠뽀 띠띠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출동! 슈퍼윙스
09:15 마샤와 곰
09:30 원더볼즈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히어로즈 트립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5:10 로보카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출동! 슈퍼윙스(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25 마샤와 곰(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재)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스파이더맨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35 내 마음의 안전기지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일 (음 8월 4일 壬寅)

☎010-9790-8237

子
36년생 전폭적인 성원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48년생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60년생 새로운 길목에 들어선다. 72년생 청산 되지 않은 것은 소모적일 뿐이다. 84년생 높은 산에 올라 간 격이니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눈이 생긴다. 96년생 망설이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6, 17

丑
37년생 옛 것으로부터 행운이 따를 수다. 49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바다로 나아가는 위상이다. 61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73년생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85년생 소폭적이나마 발전적인 이동수가 보인다. 97년생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9, 48

寅
38년생 일일이 확인해 보라. 50년생 실용적인 대응이 행운을 잡을 것이다. 62년생 시기나 내용을 잊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74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86년생 표면과 내용이 모두 완벽해야 의미가 있느니라. 98년생 바야흐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행운의 숫자 : 52, 73

卯
39년생 완벽을 추구하려다가 더 불완전해질 수도 있다. 51년생 장고한다면 참 된 결론에 이른다. 63년생 성공의 문턱에 와 있으니 맞이할 채비를 하라. 75년생 파격적인 사례가 될 것이니라. 87년생 알면서도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99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합리하다. 행운의 숫자 : 29, 51

辰
40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도다. 52년생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64년생 성과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76년생 여유를 갖고 일단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도다. 88년생 원칙에 따라서 똑바로 체계를 세울 때이다. 00년생 전방위적인 정세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5, 64

巳
41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53년생 상대의 숨은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65년생 기대하지 않음이 옳다. 77년생 과거의 사정에 기반을 둔 인식으로는 착오를 유발하기 쉽다. 89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01년생 잠깐의 휴식이 더 많은 수확이 가능하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2, 21

午
30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 법이다. 54년생 현안을 타결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66년생 낡은 것은 버리되 새 것에 대한 노력을 배가함이 적절하다. 78년생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90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90, 18

未
31년생 기운이 상승하여 길지로 안내하는 판도이다. 43년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판세라서 애매하리라. 55년생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니 걱정 말라. 67년생 부차적인 면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더 알찰 것이다. 79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91년생 내용물은 내버려 둔 채 외형만으로 인식하다가는 큰일 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8, 68

申
32년생 너무나 비슷비슷 하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44년생 실효적인 가치를 구하자. 56년생 희비가 쌍곡선을 그리며 질주하는 위상이다. 68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80년생 타의에 좌우되지 말고 의지대로 추진하자. 92년생 미흡한 점을 해소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3, 39

酉
33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45년생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57년생 상대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다 보면 자신의 문제도 가닥이 잡힌다. 69년생 징후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81년생 일관된 유지가 실력의 기반이 되어 주리라. 93년생 학수고대 하면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88, 36

戌
34년생 잊고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이가 보인다. 46년생 길조가 따른다. 58년생 큰 가닥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70년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만한 길사가 생기겠다. 82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94년생 삼사일언 한다면 신뢰가 쌓이리라. 행운의 숫자 : 45, 26

亥
35년생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 47년생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많은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59년생 잘 살펴보아라. 71년생 절실하다면 체면 불구하고 요청하라. 83년생 과신한다면 난관에 봉착한다. 95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75, 10